

1930년 4월 2일 4면1단

懷疑主義 批判(十六)

-思想과 生活의 方法論-

裴相河

그럼으로 우리사도는 우리의 □□까지를 □□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爲하여 다시 말하면 非合理的인 념우나 非合理的인 넷날 權威를 破壞키 爲하여 그리하여 바라던 自由를 부여잡을 수 잇스며 □□하든 合理的 生活을 建設하기 爲하여 徹底히 冷靜하게 客觀的으로 그것을 解剖하지 안흐면 안될 것이며 疑心하지 안흐면 안될 것이다.

徹底히 冷靜하게 客觀的으로..... 이곳은 懷疑의 □□이다.

우리는 힘弱하고 그것은 념우나 힘 센 存在이다. 그것은 호랑이다. 주먹으로 두들겨 잡으려다간 도리혀 □을 본다. 옛보고 옛보아서 날카로운 칼날로 호랑이의 心臟을 찢르지 안흐면 안될 것이다. 호랑이는 權威요, 옛보고 옛봄은 徹底히 冷靜하게 客觀的으로이며 날카로운 칼날은 懷疑 호랑이의 心臟은 權威의 急所이다. 徹底스런 冷靜한 客觀的인 懷疑로써 權威의 急所□□을 把握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호랑이를 찢르는 □□로 超人的 情熱로 모든 犧牲과主觀的 事情을 돌볼 사이 업시 그야말로 猪突的으로 把握한 急所的 □□을 □□하고 또 □□ 하지 안흐면 안될 것이다. □□는 『씨름』이다. 心臟에 急所的 □□의 □□를 當 할 것 가트면 아모리 힘 세인 存在일지라도 □□하지 안할 수 업슴은 定한 理致이다. 긴 가든 나그네가 山골서 호랑이를 맞날 쎄엔 그는 專心全力을 다하여 호랑이와 싸우지 안흐면 안된다. 이러한 쎄에드 그가 그의 □□한 바 □□와 實物을 計劃하고 잇슬 것이며 第達을 計劃하고 잇슬 것이며 私慾私利를 쏘꾸고 잇슬 것인가? 우리는 길가는 나그네이다. 그리고 우리의 現狀은 山골서 호랑이를 맞나고 잇지 안는가? 그래도 오! 얼마나 안타까웁고도 애타는 인이냐! 그들은 그들을 먹으려는 호랑이들이 입을 버리고 잇슴도 아지 못하는 체 그들이 □□한 바□□와 實物을 計算하고 잇스며 名達을 計劃하고 잇스며 私利私慾을 쏘꾸고 잇슴이니.....

個個의 不平을 超越하자. 個個의 □□을 超越하자. 不平과 □□만은 우리의 生活을 □□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바라는 바는 하나일 터이니 求하라 어드

리라는 □셀 밋테 個人的 感情과 個人的 意志와 個人的 生活을 죽여 한 뭉치로 集中하지 안흐면 안될 것이다. 우리의 뭉치를 害하려는 호랑이의 뭉치와 □□해서 懷疑의 칼을 갈고 破壞의 □□ 建設하지 안흐면 안될 것이다.

徹底히 冷靜하게 客觀적으로 疑心하자-이것은 筆者의 信念이며 또한 同志들에게 對한 □□한 勸告이다.

以上은 懷疑의 □□의 方面 卽 破壞의 前提로써의 方法論的 懷疑論의 論述이엇섯지만은 여기에 關聯해서 破壞의 前提 아닌 懷疑 다시 말하면 □□의 前提로써의 □□의 前提로써의 懷疑論의 價値를 批判하자 한다. 엇더한 對象을 □□ 할 새 또 엇더한 對象 속에 □□하려 할 새 徹底한 理解 冷靜한 洞察업시 □□批判的 □□懷疑的으로 말하자면 □我的 態度를 取함이 普通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가튼 □□批判的 □□我的 態度는 □□一時 氣分의 感情□□的 □□서 生겨만이니 對象을 徹底히 把握하기엔 넘어나 □□한 態度라 하지 안할 수 업다. 그 對象을 □□ 할 새 그 對象에 □□하려 할 새 그 前에 自然히 生겨나는 □□的 感情과 □□我的 □□을 □□물리치고 冷靜히 客觀적으로 그 對象을 疑心하지 안코서는 그 對象을 眞實히 □□하며 그 對象核心의 作用이니 偉大한 感情은 冷冷하고 堅固한 意志의 □□를 바더야하는 卍답이다. 그럼으로 모-든 宗教家들은 넘어나 □□批判的인 感情의 □□ 밋테 自己自身을 조금우케 넘어나 조금아케 없디여두기 前에 信仰의 中心 그것과 나와의 關係 그것과 사람과의 關係 等等 宗教의 核心속서 自己自身을 窸窣히 세워하 날이 문혀지드라도 밋지 안흐면 안되는 堅固한 □□를 □□하지 안흐면 안니 될 것이다. 그리고 이리케 하기 爲하여 吾人은 모-든 宗教家들에게 前提로써의 徹底한 懷疑的 態度 다시 말하면 批判的 客觀的 態度를 勸告 하나 한다. 이러한 吾人의 勸告를 고마움 다하기보담 □□하고 잇슬 넋날 宗教家도 업지 안할 것이다. 모-든 宗教는 宗教의 對象을 疑心하지 말라고 說教하는 卍답이다.